

[종합·해설]



北 미사일 발사

■ 국회, 정부 능력대처 등 추궁

“메구미 유골에 다른 유골 안 섞여

메구미씨와 결혼생활 행복했다”

한나라 “통일·외교·국방장관 교체”

우리당 “북에 경고 메시지 ... 대화 기조 유지해야”

“미사일 위상 가능성”은 정보수집 능력 부족 입증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6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군 장성과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통일부 등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국회로부터 텃매를 맞았다. 국회는 6일 오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3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능력대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상황을 총체적 국가위기로 규정,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의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보내지만 대화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선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회와 여론의 집중 추궁 대상이 되고 있는 통일부는 곤혹감 속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안보라인 교체 놓고 설전 = 한나라당은 안보관련 장관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통일부의 소속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으며 차체에 이종석 통일, 반기문 외교, 윤광웅 국방장관 등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참여정부의 북핵관리는 전면적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우리 외교안보팀은 북핵문제의 본질을 대안단산적 사안으로 관리해 온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같은 당 최성 의원은 “한나라당이 외교안보 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마치 때가 되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능력대처 집중 추궁 =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을 몰았을 때 정부에서는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폈다”며 “정부가 국회에 긴박한 상황을 설명한 적도 없고 항상 뒷북만치고 있다 보니 대응까지도 늦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병차 의원 역시 “정부가 신중한 건 좋지만 너무 수동적”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보고시간이나 대책회의의 시간도

많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정보수집 능력 한계 추궁 =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미국은 지난 5월19일부터 북한 미사일을 위성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6월24일 국방위에서 위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정보 수집 능력 부족을 따져 물었다.

정보위 소속 정형근 의원은 “정부가 그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

이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정부의 정보능력 부재 아니냐”며 “특히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선반구 없었던 것은 정보능력 부재를 극명히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통일부 = 통일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안팎의 대북 강경 여론도 감안해야 하고 다음 주로 다가오는 장관급회담 개최를 놓고도 정부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특히 당혹감이 큰 것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목적임이 포착된 이후 대북 설득 노력을 주도할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과 40여일 전에는 역사적인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북측의 일방적 연기통보에 이어 이번엔 미사일 실험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통일부는 두 번이나 뒤늦게 맞은 셈이 됐다.

무엇보다 통일부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은 사전에 안일한 정보관단을 했다는 지적. 다른 부처에서는 북한이 쓸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통일부는 지난 달 중순의 ‘첫 비사’ 이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포동 2호 외에도 한국을 사정권에 넣고 있는 스커드미사일까지 무더기로 발사하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되는 것도 통일부를 당혹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우선 통일부 입장은 ‘예정대로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가 가능하다면 연기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연기나 대화 중단은 이어질 우려가 적지 않고 중단된 대화를 복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통일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영남씨 日 기자와 회견

남북 김영남(45)씨는 6일 특수기 관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요코다 메구미의 납치 경위를 묻지 않았지만 메구미와의 결혼생활은 “행복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

김씨는 평양을 방문중인 일본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김씨와 메구미 사이의 딸인 은경(18)양도 동석했다. 북한 당국은 일본인 납치피해자 메구미가 김씨와 결혼해 살다가 자살했다는 발표했으나 일본 정부는 “그녀의 생존설을 제기, 논란을 빚어왔다. 김씨는 22세 때 메구미와 처음 만났다면 메구미가 “귀엽고 얌전했다”고 회고했다. 또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만나 6개월 뒤 결혼하고 1986년 8월 결혼했다”며 “나로서는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가짜’ 논란을 빚은 메구미의 유골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골이 섞였는지 모른다”고 자신이 밝



6일 오전 김영남씨가 평양시내에서 일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처 메구미씨와 딸 김은경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어 가져가면 “나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메구미를 화장한 시기는 ‘1997년 봄’이라며 메구미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1993년 사망’이라고 쓴 이유에 대해 “시간이 없었고 당황해서 썼기 때문에 날짜를 착각했다”며 “한번은 내가 썼으나 필적이 공개될 것으로 생각해 관계부문에 사람에게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고위직 직무등급 파피 실감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배정 1급 2개직위에 최하위 등급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에 따라 1천 240개 직위에 대해 직위별로 직무등급을 배정할 결과, 과거 1급 관리관 자리 가운데 2개 직위가 최하위인 ‘마’등급에 배정됐다. 또 3급 초임국장 직위 중 일부가 ‘다’ 등급으로 상황 평가를 받는 등 부분적으로 ‘계급 역전현상’까지 벌어졌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중견의 1급 자리의 경우 직무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감안돼 ‘가나’ 등급으로 배정됐으나 13%에 해당하는 28개 직위는 ‘다’ 등급 이하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 현황

Table with 5 columns: 구분, 계, 종전 계급 기준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and 4 columns of counts. Total counts: 1,240, 221, 706, 313.

(출처: 중앙인사위원회)

직위로 하향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에 2급 자리였던 국방부 자원본부장이 이번엔 직무등급 중 가장 높은 ‘가’등급에 배정됐고 3급 초임국장 자리이었던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관리과 보건복지부의 국립병원장들도 중간 직무등급인 ‘다’를 배정받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민주 사무총장 배기운세 정책위의장 최인기의원

민주당은 6일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에 배기운 전 의원을 선임했다. 배 사무총장은 한국보훈복지공단 사장과 16대 국회의원



배기운 사무총장 최인기 정책위의장 /임동욱기자 tuim@

의원이 임명됐다. /임동욱기자 tuim@

北 “미사일 발사는 국방력 강화 훈련”

외무성 대변인 “미사일 발사 훈련 계속”

“6자회담 무관... 대화협상의지 변함없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군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애당초 6자회담과 무관하다”면서 “우리 군대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위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무성 대변인은 “만약 그 누가 이에 대해 시비잡히고 압력을 가하려한다면 우리는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북한은 특히 98년 때

와는 달리 인공위성 주장은 펼치지 않아 주목을 끌었다.

그럼 왜 북한은 과거와 달리 군사훈련임을 대외에 공포했을까.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그동안 표명해온, 즉 미국의 태도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결코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음을 미국에 경고하는데 큰 목적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 집권 기간 내 미국의 대북압박이 이뤄질 때마다 군사적 억제력을 강조해 왔다.

대변인은 이날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대로 6자회담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북한은 6일 대포동 2호 등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번에 있는 성공적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우리 군대가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지금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과 같은 일부 나라들이 위안이나, 도발이나, 제재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이나 하면서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분주함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또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이런 합법적 권리는 그 어떤 국제법이나 조일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및 다목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미사일기술통제제도에 가입한 상원국도 아니며, 따라서 이 제도에 따르는 어떠한 구속도 받을 것이 없다”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reas including 정우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등지공인중개사,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아름다운부동산, 국민공인중개사, and 혁신적 교육사업. Includes contact info and property details.